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안식일 문제에 대하여 매우 혼돈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리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려움은, 문제해결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신 인간의 지도력과 교회의 전통을 따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식교는 안식일이 한 주간의 일곱번째 날이며 모든 크리스천들은 휴식과 예배의 날로 제 칠일을 지켜야만한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구원이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의하여 결정되며 계시록에 언급된 '짐승의 표'는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와는 다른 견해를 가진 부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 안식일은 제 칠일에서 첫 번째 날로 바뀌었으며 이제 모든 크리스찬들은 휴식과 예배의 날로 일요일을 지켜야 한다고 논박합니다. 이들은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며, 이제 신약에서는 부활을 기념하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양쪽 모두의 주장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성경말씀을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것을 '짐승의 표'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성경은 일요일을 '기독교의 안식일'이라든가 다른 어떤 종류의 안식일로 부르지도 않습니다.

1. 구약의 안식일은 제 칠일이다.

출애굽기 20:10은 "일곱째 날은 주 네 하나님의 안식일인즉"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하여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안식일은 일곱째 날입니다. 이 날은 한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그날을 안식하라는 날로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일곱째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정해 놓으심으로 안식일은 일곱째 날 즉 토요일입니다. 일요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2. 안식일은 구약의 계명이지만 신약의 계명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모세율법의 한 부분이며 율법아래 있는 유대인 이외의 다른 누구에게도 결코 주어지지 않았습니 다. 음식문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돼지고기나 비늘없는 생선을 먹지 말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할례도 마찬가지 입니다. 모두가 유대인 들에게 지키라는 명령들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에 사는 성도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돼지고기와 비늘없는 생선도 먹지 말아야하며 율법대로 할례도 받아야한다는 말과 똑 같습니다. 신약 어디에서도 안식 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신약에서 십계명은 안식일 규정을 제외하고는 반복적으로 되풀이 됩니다. 신약에 언급된 많은 죄들중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결코 죄로 언급되지 않았습니 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한번도 대중들에게 안식일을 지킬것 을 요구하지 않았습니 다.

오히려 예수님은 요 5:18에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으며 안식일을 범할뿐 아니라, 안식일에 일을 하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셨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것과 지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긴것에 분개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누구에게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 다. 이러한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도들 역시 신약시대 교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가르치지 않았 습니 다.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이방인들이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할때에 안식일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행 15 장) 그외 히브리서나 바울의 서신서들에서도 언급이 없습 니 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른 믿음 생활입니다.

3. 안식일은 특별한 표적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안식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사이에 주어진 특별한 표적이라는 사실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해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출 31:12-13, 16-17 에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진실로 내 안식일을 지키지니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있을 표적이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키지니 대대로 안식일을 지켜 영속하는 언약으로 삼을 것이니라.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있을 영원한 표적이니 이는 주가 옛새 동안에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며 상쾌하게 되었음이니라.’

4.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경고했다.

골로새서 2:14 절을 보면 ‘우리를 대적하고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들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신약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6-17 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거룩한 날이나 안식일로 인하여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하라. 그것들은 다가울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그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실때까지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히 9:10 절) 그러므로 안식일교회나 유대인이나 누구도 안식일로 인하여 크리스천들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명령은 부정한 고기들에 대한 명령 및 다른 의식적 율법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크리스천들이 유대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갈 4:9-11)

5. 신약의 예배일로서의 주의 첫날

크리스천들은 안식일을 지키도록 되어있는 구약의 계명에 의해 속박되지 않으므로 토요일 대신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정당한 일인가? 우리는 주일(일요일)을 형식적 안식일 즉 의식적 율법의 한 부분으로 지켜서는 안됩니다. 다만 예배의 날로 자발적으로 그 날에 모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히 10:25) 우리는 예배를 위해 모일 것을 명령 받았습니다. 오늘날 예배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에 그리고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6. 안식일과 주일(일요일)의 중대한 차이들

- 1) 안식일은 모세의 율법아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이었고, 주일은 은혜아래 있는 신약의 크리스천들을 위한 것이다.
- 2) 안식일은 죽음의 형벌로 인해 강제로 시행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율법 이었지만 (민 15:32-36) 주의 첫날인 주일은 명령이나 형벌 없이 크리스천들에게 자발적으로 지켜지는 은혜에 관한 것이다.
- 3) 안식일은 신체적 휴식의 날이었으나(출 20:10) 주일은 예배의 날이다(행 20:7; 계 1:10)

7. 결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마땅히 행하는 감사의 표현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상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어느날을 따로 정해 놓지 않았으며 모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일 수 있는 날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